

데뷔 30주년 기념 단독콘서트 **조관우**

“관우 만든 ‘광호’로 돌아가는 시간”

광호 시절 발매한 음반 수록곡·4집 애창곡 ‘길’ 등 무대

“광호(조관우 본명)가 관우를 만든 거죠. 언더그라운드에서 음악을 배우지 못했으면 조관우 인생은 짝았을 거예요. 30년 못 버텼을 거야...”

조관우(조광호·58)는 지난 30년 가수 인생을 돌아보며 문득 데뷔 전 ‘광호로 살아온 28년’이 머리에 스쳤다. 음악 하는 형들에게 발로 차이기도 하고, 클럽에서 일하며 뒷산에 올라 발성을 연습하기도 하던 시절까지 노래 하나로 충신했던 그 시절.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관우는 그런 조광호를 “너무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가 오는 5월 열리는 30주년 콘서트 제목을 ‘더 메모리즈: 관우에게 광호가’로 지은 이유다.

이번 공연은 그가 가수 조관우라는 이름을 내걸고 선보이는 10여 년만의 단독 콘서트다.

조관우는 이번 공연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걸 해보겠다”며 “(광호와 관우를) 넘나드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그가 가장 기대하는 무대는 조광호 시절 발매한 음반의 수록곡 무대다. 그의 이름과 함께 ‘재즈’(jazz)라는 글자가 박힌 이 음반은 ‘초희귀 LP(바이닐)’로 취급되며 시장에서 130만원가

량에 거래되고 있다.

“1992년 발매된 걸로 돼 있는데 녹음은 그보다 3~4년 전에 한 거예요. 군 제대 뒤고, 코러스에 참여한 애 엄마가 스무 살 때니까 1989년도쯤이죠... 그냥 물린 음반인데, 팬이 조광호 음반이라면서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도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디로 흘러진 줄 몰라요. (웃음)”

브라스(관악기) 3인을 포함한 12인조 세션으로 짝 찬 사운드를 준비 중이라는 그는 “조광호를 데리고 나오는 게 가장 기대된다”며 들뜬 표정이었다.

조관우는 국악인 집안이다. 아버지 조통달과 이모할머니인 박초월이 모두 판소리 명창이었고, 조관우 역시 어려서부터 국악을 배워 국악예고에 진학했다.

그러나 가수로서의 그의 음악적 기반은 이런 집안의 배경과는 거리가 먼 솔(soul)과 펑크, 그리고 디스코다. 그를 독보적인 위치로 올려놓은 가성 창법 그런 기반에서 나왔다.

1994년 발표한 데뷔 음반 ‘마이 퍼스트 스토리’(My First Story)의 수록곡 ‘눈’에서는 그 창법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지난 30년간 가장 기억

에 남는 순간을 묻자 망설임 없이 1집 발매 당시를 꼽았다.

“(1집) 음반 내고 보름인가 있었는데 온통 조관우 테이프만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아, 조관우가 됐구나.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집 커버에서 조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얼굴이 알려지면 리어카도 못 끈다’, ‘남의 상품이 되는 길에 들어서서 거다’라며 겁주는 아버지의 말에 “조관우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것 같다”고 그는 회상했다.

당시 방송 출연을 모두 거절한 데 대해 아쉬움도 남는다는 그는 “(얼굴이 안 나와서) 화상을 입었네, 대머리네 하는 소문이 진짜 많았다”고도 전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눈’이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1997년 발매된 정규 4집 ‘웨이팅...’(Waiting...)의 수록곡 ‘길’이다. 이 곡이 “광호일 때 한 음악과 아주 흡사하다”고 했다.

조관우는 그간의 적지 않은 굴곡에도 30년을 음악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다.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조관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는 5월 11일 서울 영등포 문화라이브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5월 열리는 단독 콘서트 ‘더 메모리즈: 관우에게 광호가’를 앞두고 있는 가수 조관우.

제주 4·3과 르완다...공감·연대의 다큐로 보듬다

‘그날의 딸들’·‘세월: 라이프 고즈 온’...피해자들의 만남 조명

국가 폭력이나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대화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모습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잇달아 개봉한다.

단순한 고발을 넘어 피해자들의 공감과 연대를 그려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 4·3 사건의 76주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의 딸들’이 대표적이다.

안성기 주연의 영화 ‘종이꽃’(2020)의 고훈 감독이 연출한 ‘그날의 딸들’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의 딸인 양경민 씨와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 유가족인 파치스 씨의 이야기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르완다의 다수 종족인 후투족 강경파가 투치족 80만 명과 후투족은 건파 수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사공간적으로 동떨어진 두 사건을 잇는 이색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양 씨는 4·3 생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작가이고, 파치스 씨는 한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다.

‘그날의 딸들’은 제주 4·3 사건과 르완다 대학살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간다.

둘의 대화를 듣다 보면 4·3 사건과 르완다 대학살이 멀리 떨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다큐멘터리 ‘그날의 딸들’



다큐멘터리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자들의 상처는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두 사람이 4·3 사건과 르완다 대학살 생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감동을 준다. 이들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해자들과 화해는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기도 한다.

고 감독의 여섯 번째 작품이자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인 ‘그날의 딸들’은 지난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4·3 영화제에서도 상영된다.

지난 27일 개봉한 장민경 감독의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이하 ‘세월’)도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공감과 연대를 통해 치유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날의 딸들’과 맥을 같이한다.

‘세월’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유경근 씨,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 황명애 씨, 1999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유가족 고석 씨의 이야기다.

유 씨가 2018년 운영한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을 매개로 만난 이들은 사회적 참사 이후 보낸 고통의 나날을 회고한다.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이미 흐릿해져 가는 참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준다.

유 씨와 고 씨가 서로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장면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참사의 재발을 막을 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에는 1987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도 등장해 연대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열서안고 아픔을 나누는 이야기도 담겼다. /연합뉴스

배우 남일우 별세...김용림 남편상·남성진 부친상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와 ‘진절할 금자씨’ 등에 출연한 배우 남일우(사진)씨가 3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의 배우자인 배우 김용림씨 소속사 관계자는 고인이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8년 KBS 공채 성우 3기로 데뷔했고 1964년에는 같은 회사 공채 텔레토로로 데뷔해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KBS 2TV ‘위험한 사랑’(2005), MBC ‘왕꽃 선녀님’(2004), SBS ‘아인시대’(2002), ‘편의 전쟁’(2007)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고, 2000년 데뷔하는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진절할 금자씨’(2005)에서는 주인공 금자



의 복수를 돕는 최 반장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죄와 벌’(2017)과 ‘신과 함께-인과 연’(2018)에도 출연했다.

고인은 동료 배우인 김용림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과 아들인 배우 남성진씨를 뒀다. 남성진씨 역시 배우인 김지영씨와 결혼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4월 2일 오전 11시 진행되며 장지는 시안가족 추모공원이다. /연합뉴스

한소희·류준열 결별...“대중을 힘들게 만들었다”

배우 한소희(사진)와 류준열이 결별했다고 한소희 소속사가 30일 전했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톰엔터테인먼트는 두 배우의 결별 소식을 전하며 “둘 다 배우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 개인사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고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한소희 씨는 그동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과 대중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소통의 방법이 옳지 않았고 죄송하다. 어떤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한소희와 류준열과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 퍼졌고, 양측은 열애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류준열이 7년 사귀던 연인 헤리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른바 ‘환승’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소희는 개인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고 헤리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거듭 올려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리극)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